

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성혜영입니다. 앞으로 20회 동안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주제입니다마는 종교에 관한 얘기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꼭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학 중에서도

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 분야를 주로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 종교 체험을 포함해서 신비주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분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회 동안에 종교에 관한 얘기.

특히 현대사회에서 왜 새삼스럽게 종교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전공한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다시 말하자면

종교의 비교 연구입니다. 종교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것은
종교 현상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혹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더 깊게 이해함으로써 인간 존재와 세상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인문학의 한 분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교라고 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가 어떻게 서로 같고 다른가? 그리고 개별 종교 전통을

넘어선 보편적인 종교성 혹은 종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해보려고 하는 학문인 거죠.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종교가 뭘까요? 종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뜻 들으면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 익숙해서 누구나 다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유교와 같은 이슬람교에 이르는 다양한 종교 전통들은
있지만 이 중에 어떤 것들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종교라고 하는 개념 혹은
종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여러 종교 전통들을 비교해서

이것들을 함께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게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교를 지칭하는

그러니까 불교 내부 전통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근대화 이후에 일본이 서양의 개념들을 받아들이면서

한자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Relig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 불교적 맥락에서 등장한 종교라는

말로 이제 번역하게 된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종교는 그 개념
자체에 이미 비교, 다시 말해서 여러 종교 전통들을 망라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 의미 차원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20번 동안에 종교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저희가 쪽 나누게 될 건데요. 말씀처럼 이게 종교가 워낙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교의 특정한 측면.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변화가 막대한 현대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얘기를 쪽 전개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라는 게 이제 워낙 정의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20번의 강의 동안에는 주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 심리학자하고 폴 틸리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종교 개념을

이렇게 결합해서 활용해서 종교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일단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맺는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관념이 종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학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폴 틸리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데 삶,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어나고, 왜 죽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 체계를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을 견해를 이렇게 합하면 결국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 체계인데 이 해답 체계가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죠. 예컨대, 저희가 성경과 같은 기독교의 경전을 보면 이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이 개인이 자신의 머릿속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적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하느님 혹은 천사, 저쪽 하늘, 보이지 않는 세상, 차원으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점에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해답 체계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종교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쪽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특히나 종교가 이제 워낙 광범위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강연이

10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특히 이제 종교 심리학과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이제 이제 비교의 관점에서 종교학이 학문으로써 정립된 이후에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발견한 여러 가지 사실에 입각해서 종교 현상 혹은 종교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종교란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인간이 맺는 관계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 체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로써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자기 삶을 종교 못지않게 헌신하게 되는 대상입니다마는 이걸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종교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보이지 않는 차원,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로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에서는 이 종교를 지성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낮습니다. 원래 이제 종교학 자체가 서구 사회,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신학과 또 현대 학문이 분리가 되면서 현대 학문의

한 분과로써 종교 현상을 비판적인 이성, 지성을 활용해서 연구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몇백 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한편 동양 사회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앙,

믿음의 대상이지 이거를 이렇게 지성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20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20회 동안에 얘기를 할 내용들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종교의 일반적인

내용, 종교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영혼과 죽음과 같은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특히 종교가 왜 현대 사회에 많은 갈등들의 원인이 되거나

증폭시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심층 종교 혹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종교 현상에 대한 얘기들도 다뤄보고요. 그다음 또 종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명상이라든지 혹은 종교 체험과 같은

저희가 이제 익히 들어본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종교의 이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다종교 문화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 끝으로 1부의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현대사회에서 종교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들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유교와 같은 전 세계의 종교

전통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개별 종교 전통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2부의 마지막에서는

전체 강연의 결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이제
미래사회에는 앞으로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변모할 건지에 관한 얘기로 전체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문화치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나 문명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예전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졌을지는
모를지언정 여전히 인간 삶을 혹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종교 상황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0회 동안 종교에 관한

다채로운 다양한 얘기를 편안하고 흥미롭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신, 인간,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